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하는 꿀잼도시 광주

의정단상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 FC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3연승과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2연승, 그리고 광주 출신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까지! 정세랑 작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광주의 가을은 연일 “환한 기쁨의 밤”으로 가득하다.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꿀잼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축제와 관광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먼저 ‘스포츠’는 광주의 중요한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다. KIA 타이거즈는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며 광주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광주 FC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에 진출해 국제무대에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구단의 성공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중소도시들이 스포츠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그린베이와 NFL 그린베이 패커스, 독일 도르트문트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축구팀은 스포츠 구단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

객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광주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스포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다행히 광주시는 올해 초 ‘365일 활력 넘치는 스포츠 관광도시’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 비전은 스포츠와 휴가를 결합한 ‘스포츠케이션’과 스포츠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스포노믹스’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경기 관람 외에도 광주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투어 상품들이 개발되었는데, 필자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책의 효과성과는 별개로, 꽤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문화’ 역시 광주의 중요한 정체성이다. 최근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광주는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다.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취를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세계적인 행사와 연계하여, 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G-페스타 활성화’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G-페스타

는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광주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하나로 모아, 스포츠 경기나 문화 행사와 결합해 광주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일 수 있다. 앞으로 G-페스타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광주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다.

다음 제안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광주의 스포츠 및 문화를 연계하는 것이다. 현재 광주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엔날레를 연계하여 답례품으로 비엔날레 관람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스포츠까지 확장한다면 어떨까. 스포츠 팬들이 광주에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KIA 타이거즈나 광주 FC의 관람권 또는 한정판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매력을 지닌 경험이 될 수 있다. 또 이 기부금을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면,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기여한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다.

광주는 이제 ‘꿀잼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머지않아 스포츠와 문화, 축제가 하나로 어우러져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광주를 찾아와 머물며, 이곳에서의 시간을 특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광주 시민들이 앞장서서 광주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즐겨주길 바란다.

노잼도시 광주는 가라, 꿀잼도시 광주가 온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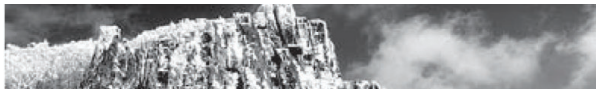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제공한 사진에 24일(현지시각) 필리핀 남카마리네스주 나부아에서 구조대원들이 제20호 태풍 짜미로 침수된 마을에 고립됐던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내 집, 내 도시, 내 아이들을 지킬 거예요. 내 나라, 내 도시를 잃고 싶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던 지난 2022년 2월 15일, 러시아제 소총 ‘AK-47’을 들고 훈련에 나선 한 할머니 사진이 외신에 보도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주인공은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에 사는 79세의 발렌티나 콘스탄티노우스카 씨. 팔손을 앞둔 백발의 그녀는 죽음을 무릎 쓰고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손주를 안아야 할 할머니가 총기를 든 모습이 씁쓸하다.”는 게 외신의 평가였다.

그리고 열흘도 안된 2월 24일 시작된 전쟁. 결과는 참혹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월 17일자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48만 명, 모스크바 60만 명 등 총 사상자 수가 108만 명에 달한다는 암울한 통계를 공개했다.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다. 당장 러시아의 경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 자산이 동결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우크라이나 또한 건물과 인프라 등이 파괴되면서 120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내 나라, 내 아이를 지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되레 양쪽 모두를 잿더미로 만들고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만 남긴 것이다.

전쟁의 정체성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푸틴을 악마화하고, 우크라이나와 젤렌스



키를 피해자로 보는 지배적 여론을 ‘유럽과 미국에 편향된 평가’라며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영웅인가부터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서방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가 등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미국과 나토의 ‘도발’로 인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는 친 러시아적 주장과 함께 전쟁을 선악의 구도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것이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SNS에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도움을 배신으로 갚는다는 국민의 비난도 높다. 우크라이나 아조우 여단 크로테비치 장군이 했다는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라는 말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3차 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는 언급도 인류를 재앙으로 내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극우와 백인 우월주로 상징되는 아조우 여단. 어쩌면 전쟁의 빌미를 준 우크라이나 군의 무례하고 이기적인 발언은 결코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아이를 지키겠다’는 가치와도 어긋난다. 자신들의 전쟁을 확산시키려는 우크라이나, 인류를 불모로 자신들만 살겠다는 그들의 분별 없는 발언이 안타깝다.

이용환 논설실장

社說

가능성 키운 ‘광주 스포츠 관광’ 활성화

시장배 파크골프 성황 마무리

‘2024 광주광역시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지었다. 예선 4일, 본선 2일 동안 대회 선수단과 관계자 등 2500여 명이 광주에 머물면서 ‘체류형 대회’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이번 전국파크골프 대회는 23~24일 광주 광산구 서봉파크골프장에서 본선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총 상금 3600여 만원이 걸린 만큼, 참가선수들이 높은 기량을 뽐냈고, 우승자도 가려졌다.

이번 광주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는 올해부터 광주지역 최대규모로 치러지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축제의 계절인 9~10월 대회를 치르면서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 문화·예술·축제와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다. 대회 기간인 10월 광주 곳곳에서는 예술과 맛을 주제로 광주에이스페어,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추억의 충장축제, 광주김치축제, 서창역새축제 등으로 구성된 ‘G-페스타 광주’가 열렸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도 광주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파크골프 참가자들은 영산강변에서 캠핑을 즐기고, 김치축제, 5·18사적지 등을 방문하면서 ‘스포츠 관광’이라는 새장을 열었다.

올해 광주는 스포츠 인기가 높다. 전국구 프로야구팀인 기아 타이거즈가 정규시즌 우승에 이어, 한국시리즈 1·2차전까지 승리하면서 남은 다섯 경기에서 2경기만 이기면 12번째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다. 시민 축구단인 광주FC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에서 일본의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가와사키 프론타레에 이어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다를 탁집 FC까지 연파하며 리그 스테이지 통과에 청신호를 켜다. 광주시가 올해 발표한 ‘스포츠 관광’ 정책을 활성화 시킬 절호의 기회다. 인기있는 야구와 축구, 파크골프 등의 대회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축제·문화·예술 행사와 연계방안을 더욱 견고히 한다면 광주의 스포츠 관광 활성화는 충분히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관광이 광주를 노잼도시에서 벗어나 ‘꿀잼도시’로 가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지역 학생의 참여 필요한 ‘한국코드페어’

소프트웨어 가치 적극 알려야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그램 경진대회인 ‘한국코드페어’가 25~26일 광주에서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최근 몇 년 사이 하드웨어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하드웨어의 잠재력을 살리고 실제 인류에 도움을 주는 요소는 소프트웨어에 있다. 이번 대회가 광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한층 높이고 대한민국 IT산업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작품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공모전과, 제시된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해커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공부방 등 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모전에는 지난 8월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초·중·고등학교 각 30팀씩 총 90팀이 참가하고, 해커톤은 예선을 거쳐 30팀이 본선에 올라 26일 공개하는 주제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반 해결책을 제시한다. 광주시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반 시설을 연계한 사전행사도 마련된다.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이다. 컴퓨터가 단순한 기계라면 소프트웨어는 그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고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창출해 낸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도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정보통신기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중요한 기회다. 지역의 청소년이 전국에서 참가한 우수한 인재들과 경쟁하며 다가올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도 크다.

광주시는 지역 학생들이 기존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의 세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역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광주·전남지역 시·도 교육청과 협력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대회는 지역학생들에게 국제 공용어 만큼 중요성을 인정받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소프트웨어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